

품앗이형 장애자녀 보호체계에 관한 부모의 인식: Q-방법론적 분석*

감 정 기**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에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 통상 LETS¹⁾라고 칭해지는 지역사회 단위의 대안경제이자 호혜적(互惠的, reciprocal) 성격을 갖는 제도 혹은 운동이 그것이다. 더러는 주류 경제에서 이탈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선택된 일종의 생존수단으로서, 더러는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전통을 현대적 필요에 맞추어 적용한 시도로서, 혹은 생태주의적 관심을 실천하려는 녹색 시민운동의 하나로서 이러한 LETS는 세계 도처에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김형용, 1999). 우리나라에서도 근자에 들어 ‘품앗이’나 ‘레츠’ 등의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움직임들이 적잖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착안하여, 중증 장애아동을 보호(care)²⁾하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으로서 LETS를 상정하고 있다. 재가 중증 장애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해야 하는 시간 동안 가족이 안게 되는 부담과 가족이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보호 수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 사이의 상호적(相助的) 활동이 유용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상호활동은 지역별로 부모들 사이에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은 참여의 폭이나 필요즉응(必要即應)의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활동의 형태가

* 이 원고는 경남대학교의 『경남지역연구 제7집(2002)』에 게재된 것을 학회 발표를 위해 일부 수정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교수

1) 동일한 영문 약자를 사용하면서도 지역이나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가 인용하고 있는 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s, Local Economic Trading Systems, Local Exchange Transfer Systems, Local Employment Trading Systems.

2) 독자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을 돕는 활동인 영어 ‘care’에 상응하는 우리말 표현은 일률적이지 않다. 종종 ‘개호(介護)’ 혹은 ‘케어’로 옮겨 쓰는 경향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보다 공식적이며, 다른 유형의 욕구를 가진 경우까지 포괄할 정도로 참여의 범위가 넓어서 참여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의 분산효과가 비교적 큰 LETS 형태의 상조활동 체계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도 하나의 가정일 뿐 그 실현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 다양한 요소들이 국내에 LETS가 확산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적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구상할 기회가 많은 요보호자 가족의 인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연구가 종종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LETS 활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보려 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를 둔다. 이와 같은 인식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보호와 가족단위 보호를 보완할 대안의 하나로서 LETS 방식의 상조활동의 확산 가능성 여부와 조건을 판단하는 데에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장애자녀 보호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다양한 보호방법 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아니라, 보호체계의 하나로서 LETS의 한국적 형태인 품앗이 방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세계관을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 Q-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양적 및 질적 분석을 병용하고 있는 이 방법론이 아직 국내 사회복지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분석방법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영미에서 LETS 연구의 한 방법으로 종종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현상의 연구에 Q-방법론이 하나의 유용한 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부차적 목적이기도 하다.

2. LETS의 의미와 분석범주

가. LETS의 의미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품앗이형 상조체계란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는 서구사회의 LETS를 그 모델로 삼고 있다. 서구에서 LETS는 지역통화운동의 형태로 비롯되었다. 이것은 일정 지역사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 회원들 사이에 각종 자원을 교환하게 하는 제도(system 혹은 scheme)이다. 여기서 회원들은 현금 없이도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지역통화는 명목상으로는 화폐이지만, 단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매개일 뿐이다. 따라서 이 통화는 통상적인 화폐와 달리 상품이 아니며 가치보존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김형용, 1999: 3-4; Barry & Proops, 2000: 6).

이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히 지역사회 수준에서 추구되는 현대의 내부적 교환제도(domestic barter systems)로 파악하

는 경향을 보인다(Liesch & Birch, 2000: 1-2). 지역사회 단위로 민주적으로 조직된 비영리적 사업으로서, 이것의 주된 목적은 지역 내의 기술과 자원을 보다 충실하게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자생력을 지니고 자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LETS는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김형용, 1999; Caldwell, 2000),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응수단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Ingleby, 1998).

그런가 하면, LETS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회복시키고, 소유관계와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는 대안적 사회경제제도로 인식되기도 한다(Liesch & Birch, 2000: 5; 김형용, 1999: 5-13). 이것이 대안적 사회경제제도로 이해되는 것은 공식화된 화폐중심 시장을 보완 혹은 대체하는 신용체계 혹은 교환체계이며(Liesch & Birch, 2000: 2; Caldwell, 2000: 1), 선물교환 관계망과 자원봉사정신 및 자비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비공식 경제를 공식화(formalising)하는 것이란 점에서이다(Seyfang, 1997: 1).

비슷한 시각에서 LETS가 갖는 이념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견해도 있다. Williams등(2001)은 영국의 LETS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비교적 다수의 참여자들이 주류사회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때 LETS는 참여자들의 이익과 이념을 실현하는 표출적 공동체(expressive communities)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현대의 주류사회가 갖는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서 참여자들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통로로서 LETS를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LETS의 특성은 참여자들 사이에 호혜성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는 다르며, 호혜성이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웃간의 상부상조와도 다르고, 또 LETS에 속한 누구에게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다자간 교환제도라는 점에서 개인간의 채무변제와도 다르다. 특히 이 때의 교환은 반드시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자가 붙지 않으며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거래라는 점에서 은행계좌와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Liesch & Birch, 2000: 6; 김형용, 1999: 14).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나라마다 일찍부터 발달하였을 수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화폐제도가 자리잡은 후에 등장한 최초의 지역단위 대안적 통화제도는 세계대공황 상황에서 1932년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와 미국 등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활동들이 등장하였는데, 일부는 정부의 제재로 중단되었으며, 일부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오늘날 널리 확산되고 있는 LETS 활동의 효시로는 1983년에 캐나다의 밴쿠버섬에 있는 Courtney 마을에서 Michael Linton이 설립한 것이 꼽힌다. 영국(United Kingdom)의 경우 2000년 현재 400개 이상이 활동중이며, 1997년 현재 회원규모가 2천명 이상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LETS는 호주에 있다(Fortier, 1996; 김형용, 1999; Barry & Proops, 2000).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품앗이가 발달하였지만, 오늘날의 LETS 형태의 활동으로는 1998년에 시작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미내사')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주로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역의 대도시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유사단체의 현황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LETS의 독특한 형태로서 아워즈(Hours)로 불리는 활동이 있다. 통상적인 LETS가 회원들의 계정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아워즈는 한 시간동안의 노동력 제공을 1 '아워즈(hours)'로 표시하면서 시간의 길이에 따라 2아워즈, 1/2아워즈 등으로 구분되는 지역 화폐를 유통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아워즈라고 칭하는 것은 교환의 가치가 사람이 투여하는 시간, 기술, 에너지에 의해 창출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Ithacahours Homepage).

또 다른 형태로 타임달러(Time Dollar)가 것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이다. 타임달러는 노인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여기에서 시간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사람의 노동시간을 일컫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다. LETS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호혜성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제도에 가깝다(김형용, 2000: 16). 이것은 또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여 봉사한 시간 수에 초점을 둘을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통상적인 LETS는 교환방식의 유통체계(barter currency)로서,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을 매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Cahn, 2001: 1). 이러한 특성 때문에 Douthwaite(1996)는 타임달러와 LETS를 비교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LETS와 같이 물품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타임달러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비교하기도 한다(김형용, 2000: 17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아워즈나 타임달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LETS에 포함시켜 파악한다.

나. LETS 분석의 범주

① LETS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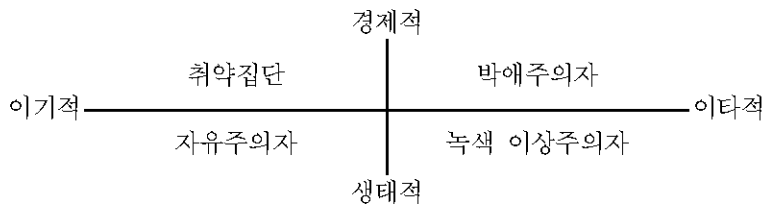
LETS와 같은 호혜적 보호활동 체계의 확산 가능성 탐색을 위해 관련자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LETS의 일반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LETS의 성격은 사람들이 이것을 결성하는 주된 목적 혹은 동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Liesch & Birch(2000)는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LETS가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확대시켜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실업자들의 기술을 활용하고, 재화와 서비스에서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여 자족적인 상태로 나아가려는 동기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한다(2-7). 즉,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업문제 해결과 자립생활 확립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LETS를 협동적 운동을 통해 다양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자급자족 형태로 보는 견해도 여기에 가깝다. 즉, LETS를 '선물교환' 혹은 '선물경제' 개념으로 파악함으

로써(Barry and Proops, 2000: 15), 이기적 혹은 이윤추구적 동기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LETS를 '사회복지의 제5영역'에 속하는 한 예로 파악하는 Fitzpatrick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상호주의(mutuality)와 공동체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강력한 생태주의적 관심사를 추구할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는 복지연합(welfare association)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제5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연합은 이윤추구를 배제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장기적인 이상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LETS라는 것이다(Caldwell, 2000: 1, 재인용).

이 밖에도 LETS가 공동체 의식의 재건과 사회관계 확대의 추구나(Williams et al., 2001: 7) 사회적 애호정신의 진작(Seyfang, 1997: 6)에 목적을 둔다고 보는 시각도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LETS의 공동체적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분히 참여자의 이기적인 목적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금전이나 교환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이 이를 극복하려는 경제적 목적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Williams et al., 2001: 7).

이처럼 LETS 참여자의 동기가 상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혹은 공동체적 동기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Caldwell(2000)은 이기적-이타적 동기뿐 아니라 경제적-생태적 동기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 차원의 동기를 교차시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적·이기적 동기를 지닌 부류를 취약집단(vulnerable), 경제적·이타적 동기를 지닌 부류를 박애주의자(philanthropist), 생태적·이기적 동기를 가진 자를 자유주의자(bohemian), 생태적·이타적 동기를 가진 자를 녹색 이상주의자(green idealist)로 분류한다.



<그림 1> Caldwell(2000)의 LETS 참여동기 분류

그러나 하면, 이타적인 입장과 생태적인 입장을 등치시키고, 이기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입장을 동일한 부류로 분류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타적이고 급진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활동 등에 오랜 전통을 지닌 집단은 녹색 운동가로 분류된다. 이런 운동가들이 지니는 녹색 이데올로기는 환경주의적이며 생태학적인 인식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이런 녹색운동적 동기와 대비되는 것이 이기적 혹은 경제적 동기라고 보는 것이다(Gran, 1998).

② LETS의 기능

담론 추출에 필요한 요인 설정을 위해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LETS의 기능에 관한 견해들이다. 즉 기존의 시장, 국가, 전문분야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LETS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시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거나 시장 진입을 위한 교환자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 경제활동으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능을 설명하는 예로서 비공식 부문의 강화, 교환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활동 진작, 통상적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술과 자원의 가치 제고 등을 나열하고 있는 Seyfang(1997: 6)을 들 수 있다. 시장의 외부에서 시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파적 입장에서 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LETS를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즉, 시민사회가 쇠신되는 한 형태로서 LETS를 파악하면서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는 자발적이고 유기체적인 시장의 사회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및 보수주의적 활동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Barry and Proops, 2000: 16).

국가의 공공정책과의 관계란 측면에서 LETS의 기능을 설명할 수도 있다. LETS는 공공정책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이른바 제3영역의 전형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거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완전고용(full-employment)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용이하게 하여 완전한 참여(full-engagement)에는 기여를 한다고 평가함으로써(Williams et al., 2001), 이것이 공공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설명한다.

LETS를 비판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 이 경우 LETS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녹색주의적 비판이자 대안의 대표적인 예로서 파악된다.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는 예로서 Fitzpatrick과 Bowring은 LETS를 오늘날의 산업사회가 지니는 '고용 윤리(employment ethic)' 혹은 '자본주의 논리'와 여기서 비롯되는 비생태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이며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복지대책들에 도전하기 위해 조직된 진보적, 탈생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적, 녹색주의적 정치 프로젝트로 본다(Barry and Proops, 2000: 15. 재인용).

좌파적 시각에서는 LETS를 시민사회가 강화되는 현상, 곧 시민사회의 소생(resurgence)으로 보는 견해도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례로, 국가를 이차적 제도로 보는 대신 시민사회 내의 제도들과 집합적 사회실천활동들을 일차적 제도로 보는 허스트(Hirst)의 '연합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론은 이런 측면에서 LETS를 분석하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Barry and Proops, 2000: 16). 이처럼 기존의 공공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에 도전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측면에서 LETS가 기능을 한다고 보는 시각들은 그것이 공공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는 앞의 시각들과는 대비가 된다.

LETS를 시장과 국가 양자 모두와 대립시켜 파악하기도 한다. 시장과 국가의 논리성과 합리성(rationality)으로부터 공동체의 생활세계(life-world)를 독립(de-colonize)시키려는 시도로서 LETS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LETS는 하버마스(Habermas, 1987)가 말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대한 저항의 실천적 사례라 볼 수도 있고, 신사회운동 이론가인 멜루치(Melucci, 1989)가 밝힌 '일상생활의 정치'의 한 예라 볼 수도 있다(Barry and Proops, 2000: 15. 재인용). 이러한 시각은 앞서처럼 LETS를 시장과 국가에 대한 보완적 기능체로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면서 다분히 그것들과 대립적인 관계를 갖는 실체로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③ LETS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LETS가 참여자 개인 및 지역사회에 어떠한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대체로 LETS는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의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LETS가 주로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들에게 생산적 활동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심리·사회적 효과란 인간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기회가 되며, 관계형성의 능력을 키워주며,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점을 일컫는다(Liesch & Birch, 2000: 8).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의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는 것 같다.

다만, LETS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이 활동에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가 하면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효율성을 앞세우는 시장과 권리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공부문과 비교했을 때 LETS가 지니는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LETS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거나 자본의 증식에 기여할 수 없다는 기능적 한계도 지닌다(Liesch & Birch, 2000: 10). 요컨대 LETS는 본질적으로 유의한 것이긴 하나, 참여자의 욕구충족 수단으로서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연구의 방법

가. Q-방법론

Q-방법론은 심리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William Stephenson(1902-1989)에 의해 193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서는 대체로 잘 알

려지지 않은 것이다. 주관적 세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으로서, 인간행동의 질적 측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own, 1993).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인간의 태도를 연구하는 질적 및 양적 접근을 연계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비교적 성공적인 분석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나는 일단의 사람들이 지니는 견해와 태도의 패턴을 의미하는 사회적 담론(social discourses)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련의 담론들을 추출해내기 위해 요인분석의 통계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Barry and Proops, 2000: 20).

조사대상자의 주관(subjectivity)을 구조화되고 통계적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속성에 따른 반응양상의 비교보다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사고의 양상들을 발견하려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며,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견해와 태도를 공유하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의 주된 소재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회현상들이 선택되는 경향이 많다(Barry and Proops, 2000: 22-23).

자료수집은 특정 주제에 관하여 제시된 일단의 진술들에 대한 피조사자의 찬반여부와 정도를 주어진 정렬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Q정렬, Q sorting)으로 실시된다. 이 때의 진술들은 관심 주제와 관련한 사실(fact)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견해(opinion)를 나타낸 것이다. 피조사자는 주어진 진술들을 정렬표에 나열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Brown, 1993).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처리되는데, 이렇게 추출된 요인들은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의 단편들을 의미한다. 특히 Q-방법은 이렇게 구분된 단편들의 성격 및 이들 상호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정도를 분석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적 분석처럼 사례수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Q-방법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의 흐름을 취합해서(concourse) 표본 진술군을 이끌어내고, 이를 하나의 Q-정렬표(Q sort)로 나타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개인, 집단, 조직 등에 창의성과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Q방법의 주된 과제는 내재해 있는 사고의 합류구조(structure of a concourse)를 밝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Brown, 1993).

나. 진술(statements)의 구성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진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앞에서 검토한 LETS의 복합적인 속성들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을 교차시킨 진술군 행렬표(concourse matrix)를 작성하였다. 가로축으로는 담론의 요소(discourse element)로서 LETS의 성격(동기), 기능(관계), 효과(유용성) 등의 세 가지를 설정하고, 세로축으로는 주장의 유형(type of claim)으로서 설명 및 이해, 전망 및 예견, 그리고 주장 및 의지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³⁾

LETS의 성격 및 목적으로는 이기적, 이타적, 호혜적 성격을 포함시키고, 기능 및 관계로는 개인, 시장, 전문부문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견해로, 그리고 효과 및 유용성은 서비스 효과, 개인적(경제적, 의식적, 기술적) 효과, 사회적(문제해결, 공동체의식) 효과 등으로 구분하였다. 세로축에 해당하는 주장의 유형 중에서 설명 및 이해는 긍정적 및 부정적 설명을, 전망 및 예견에는 긍정적(낙관적) 및 부정적(비관적) 전망을, 그리고 주장 및 의지에는 긍정적(호의적, 적극적) 및 부정적(비호의적, 소극적) 주장을 포함시켰다.

<표 2> 진술군 행렬표

	성격/동기	기능/관계	효과/유용성
설명/이해	①	②	③
전망/예견	④	⑤	⑥
주장/의지	⑦	⑧	⑨

이 연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진술들은 이렇게 해서 구분된 아홉 개의 셀마다 표현을 달리 하는 3개씩의 진술들이 포함되도록 하여 모두 27개의 진술을 확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순서 없이 나열한 27개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4)에서 적극적인 찬성(+4)에 이르는 9점 척도의 'Q-정렬표'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성한 진술들을 포함한 설문지로 경남의 한 자원봉사 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거기서 지적된 진술의 표현문제 등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3> Q-정렬의 구조

적극반대 -4	-3	-2	-1	중립 0	+1	+2	+3	적극찬성 +4

3) LETS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조사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설문지에서는 '품앗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 조사실시 전에 연구자가 응답자들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하였다.

다. 조사표본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의 방법

조사의 범위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 하였으며, 모집단은 도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아동의 부모로 삼았다. 표본추출은 일종의 집락표집(cluster sampling)과 무작위 추출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먼저 표본 집락으로 자녀보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는 지체장애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위한 도내 2개 특수학교를 선택하고, 선택된 학교에 부모회 모임이 있는 날 방문하여 모임에 참석한 부모에게 설문지를 제시하여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10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Q-방법론은 많은 사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수는 45개로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과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응답자 및 장애자녀의 특성과 관련된 단순 빈도분석을 위해서는 윈도우즈용 SPSS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PQMethod 버전 2.11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의 절차로서는 우선 QPCA (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를 실행시켜 작성된 회전 전의 요인행렬표를 참조하여 분석할 요인을 선택하고, 선택된 요인들에 대해 자동회전(varimax)을 실행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QPCA에서는 최대 8개까지의 요인을 보여주지만, 이들 가운데 비교적 의미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요인들만으로 한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values)가 4 이상인 3개의 요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4. 연구의 결과 및 논의

가. 응답자의 특성

먼저, 조사에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대부분(95.6%)이 장애학생의 어머니이며,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자가 절반(51.1%)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30대(48.9%)와 40대(42.2%)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LETS와 같은 상조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54.5%). 나머지 중에 5명이 현재 활동중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부모회를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활동중에 있는 경우이다. 이 밖에 소수가 소규모의 비공식 모임에 동참한 경험이 있거나(13.3%) 과거에 부모회 활동을 하다가 그만 둔 경우(6.7%)이다. 다수가 상조활동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LETS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직접적인 참여경험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각자가 획득한 일반적 정보에 바탕을 둔 것임을 시사한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학 력	중졸 이하	4(8.9)	관 계	아버지	2(4.4)	
	고졸 혹은 중퇴	23(51.1)		어머니	43(95.6)	
	대학 이상	14(31.1)	상 조 활 동 경 험	현재 활동 중임	5(11.1)	
	무응답	4(8.9)		경험 있으나 중단함	3(6.7)	
연 령	30대	22(48.9)	비공식 소모임 경험 있음	비공식 소모임 경험 있음	6(13.3)	
	40대	19(42.2)		관심 있으나 경험 없음	21(46.7)	
	50대	3(6.7)		경험 없고 관심도 없음	8(17.8)	
	무응답	1(2.2)		기 타		2(4.4)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장애자녀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 아동 특수학교와 지체장애 및 정신지체아동이 혼재하는 특수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80%를 차지한다. 장애등급으로는 1급과 2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전체의 82.3%이나, 이 분포는 우연한 결과이지 전체 학생분포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 학년 분포와 나이 분포의 비교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취학상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나이의 구간을 통상적인 초·중·고등학교 취학연령으로 구분하여 실제 취학상황과 비교하면, 비록 소수이긴 하나 나이에 비해 낮은 등급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장애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장 애 유 형	지체장애	5(11.1)	학 교	유치원	2(4.4)
	뇌병변 장애	1(2.2)		초등학생	24(53.4)
	언어장애	3(6.7)		중학생	13(28.9)
	정신지체	29(64.4)		고등학생	6(13.3)
	발달장애(자폐)	7(15.6)	나 이	7세 미만	2(4.4)
등 급	1 급	19(42.2)		7-12세	21(46.7)
	2 급	22(48.9)		13-15세	10(22.2)
	3 급	4(8.9)		16세 이상	12(26.7)

응답자와 응답자의 자녀들이 갖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큰 집단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의 범주와 등급이 유사하면서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두 개 특수학교의 부모들인 응답자들은, 역시 연령층이나 학력 등에서 큰 격차가 없고, 장애자녀 보호를 위해 LETS와 같이 짜임새 있는 상조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은 거의 없는 어머니들이었다.

나.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 I, II, III에 부하가 걸린 수는 각각 22, 12, 6 개로서 모두 40개 사례가 여기에 포함되며, 나머지 5개 사례가 이 세 개의 요인에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사례별 요인값 행렬표

사 례	요 인 I	요 인 II	요 인 III
1	0.2820	-0.1637	-0.3850*
2	0.2409	-0.1960	0.0150
3	0.4994*	0.2849	0.2069
4	0.1312	0.4502*	0.3030
5	0.0518	0.1044	0.8997*
6	-0.1451	0.7010*	-0.0784
7	0.4621*	0.4003	-0.3840
8	0.0140	0.5316*	-0.0798
9	0.0518	0.1044	0.8997*
10	0.4874*	0.1926	-0.0760
11	0.1311	0.6250*	-0.0052
12	0.5906*	0.0365	-0.2368
13	0.2679	0.0125	0.2962
14	0.6913*	0.2854	0.3121
15	0.7596*	0.0353	0.2049
16	0.8243*	0.1584	-0.0052
17	0.7894*	-0.2237	0.1350
18	0.5438	0.2836	0.5462*
19	0.5589*	-0.0921	0.1902
20	0.6058*	-0.1130	-0.0025
21	0.6533*	-0.0847	0.2663
22	0.6614*	-0.4488	-0.1142
23	-0.2878	0.4640*	-0.2043
24	-0.6905*	0.5219	0.2903
25	0.0043	0.8653*	0.0570
26	0.6913*	0.2854	0.3121
27	0.0280	0.5774*	0.1436
28	0.7234*	0.4306	-0.0407
29	0.5712*	0.4090	0.2757
30	0.4915*	0.4485	0.3245
31	0.2442	-0.2689	0.6148*
32	0.0540	0.1155	0.8880*
33	-0.0951	0.6372*	-0.2536
34	0.6963*	-0.0562	-0.1324
35	0.3749	0.5888*	0.2805
36	0.1312	0.4502*	0.3030
37	-0.0024	0.6312*	0.1940
38	-0.2080	0.0279	-0.0108
39	-0.1217	0.6642*	0.2358
40	0.2665	0.0126	0.0565
41	0.6852*	0.2265	0.0844
42	0.8516*	0.0432	-0.0295
43	0.5948*	-0.0865	0.1058
44	0.6849*	-0.0614	0.0426
45	-0.2499	-0.3100	0.2090
요인부하 수	22	12	6
설명변량(%)	23	14	11

(주) * 표시는 유의한 수준의 부하가 걸려 있음을 나타냄

즉, 품앗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3개 요인을 통해서 이끌어낼 담론들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부하수가 가장 큰 요인 I 이 '다수담론'(majority discourse)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요인 I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사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례가 부의 높은 상관관계(-0.69)를 보인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요인 I 은 양극적(bipolar)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각 요인별 담론 서술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세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은 각각 23%, 14%, 11%로서, 전체적으로 48%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 7>은 세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세 요인 상호간에 모두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 요인 각각으로부터 도출될 담론들이 서로 중복되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상호 독립적인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표 7> 요인간 상관관계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	1.0000	0.0491	0.1385
요인 II	0.0491	1.0000	0.1630
요인 III	0.1385	0.1630	1.0000

다수담론에 속하는 요인 I 은 다시 21개 사례에 양의 부하가 걸려 있는 다수입장과 1개 사례에 음의 부하가 걸린 소수입장으로 구분된다. 다수입장의 Q-정렬은 <표 8>과 같다. 요인 I 에 특유한 진술(distinguishing statements)로는 +값을 갖는 S2, S3, S6, S15, S11, S17(각각 $p < .01$)와 S16($p < .05$), 그리고 -값을 갖는 S14, S12(각각 $p < .01$)와 S13($p < .05$) 등이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중심으로 요인 I 중의 다수입장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표 8> 요인 I 의 Q-정렬

-4	-3	-2	-1	0	+1	+2	+3	+4
21	7	5*	1	4*	9	11**	6**	2**
26	14**	12**	19**	8**	10	16*	15**	3**
		13*	23	18**	20**	17**		
			25*	24**	22			
				27				

** $p < .01$; * $p < .05$

다수입장은 품앗이가 이기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S21 -4, S15 +3), 참여자들에게 상부상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S3 +4, S13 -2) 내다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개별 참여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S14 -3, S12 -2, S17 +2), 공동체의 발전과 개별적 필요를 조화시

키도록 운영해야 한다(S6 +3)고 주장한다. 또한 품앗이는 전문기관의 서비스와 국가의 정책이 발달하더라도 그 보완적인 기능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S2 +4, S11 +2), 이 활동에는 전문가와 국가의 일정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한다(S26 -4, S7 -3). 이러한 입장을 지니는 담론을 공동체주의적이며 국가수용적인 낙관론(communitarian pro-state optimism)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시각을 보이는 소수입장은 품앗이가 이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 국가의 개입과 전문기관의 도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한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이를 자유주의적 비관론(liberalistic pessimism)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요인II의 Q-정렬은 <표 9>와 같다. 요인II를 설명하는 특유한 진술로는 +값을 지니는 S8, S24, S23(각각 $p < .01$)과 S16($p < .05$)이 있고, -값을 지니는 S9, S15, S20, S11(각각 $p < .01$)과 S4($p < .05$)가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중심으로 요인II가 내포하는 담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요인II의 Q-정렬

-4	-3	-2	-1	0	+1	+2	+3	+4
9**	15**	4*	1	3	2	16*	18	8**
26	20**	7	5	10	6	22	24**	19
		11**	13*	14**	12	23**		
			17*	21**	25*			
				27				

** $p < .01$; * $p < .05$

이 담론은 품앗이가 국가의 정책과 전문적 서비스를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S19 +4) 국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문제해결이 더 유용하므로 후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S9 -4, S20 -3, S8 +4)고 보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전문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S24 +3)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S23 +2), 장기적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전문기관의 활동이 발전하면 품앗이의 필요성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S18 +3, S11 -2).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품앗이의 공동체주의적 가치는 매우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해된다(S15 -3). 이 입장은 한 마디로 국가의 정책과 전문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및 전문성 지향적 관점(policy and profession orientation)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요인III의 Q-정렬은 <표 10>과 같다. 이 요인을 대표할 만한 특유한 진술로는 +값을 지니는 S27, S14, S1(각각 $p < .01$)과 -값을 지니는 S24, S22, S16, S8, S15(각각 $p < .01$) 및 S17($p < .0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진술들이 뜻하는 바를 중심으로 요인III이 나타내는 담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요인Ⅲ의 Q-정렬

-4	-3	-2	-1	0	+1	+2	+3	+4
24**	21	7	5	4*	1**	2	14**	19
26	22**	16**	8**	11**	3	9	18	27**
		17*	15**	13*	6	12		
			23	20**	10			
				25*				

** p < .01 ; * p < .05

이 담론은 품앗이가 비록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구성된 모임은 아니나(S21 -3, S16 -2), 특별히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S22 -3)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응답자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비는 제한적이라고 보아(S14 +3, S27 +4, S17 -2),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기관이나 국가의 몫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S19 +4)는 점에서 요인Ⅱ와 공통적이나, 전문적 서비스가 발전하더라도 품앗이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봄으로써(S24 -4) 상반된 시각을 나타낸다. 요컨대, 이 입장은 품앗이의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되 그것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적 현실론(reluctant realism)이라 분류할 수 있겠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이상의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응답자로부터 동일한 반응을 얻고 있는 진술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S26으로서, 담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4의 극단적인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술의 내용은 “품앗이는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품앗이가 자발적인 공동체란 점을 부정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볼 때, 이 진술에 반대여사를 표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품앗이를 어떻게 이해하건 상관없이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맺는 글

이 연구는 일부 특수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LETS의 한국적 모형인 품앗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Q-방법론에 따라 파악해보려 한 것이다.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진술을 작성하기 위해 LETS의 성격 혹은 동기, 기능 혹은 관계, 효과 혹은 유용성 등을 각각 설명 혹은 이해하는 시각, 전망 혹은 예견하는 시각, 그리고 주장 혹은 의지표명의 시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27개의 진술들을 조사대상자들

에게 제시하여 개인별 Q-정렬표에 진술에 대한 상대적인 찬반의사를 표시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방법론 전용 통계 패키지로 요인분석을 하여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로써 품앗이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들의 인식유형을 담은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추출된 세 가지 답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수답론에 속하되 양극성을 갖는 것으로서, 공동체주의적이며 국가수용적인 낙관론과 이에 상반되는 자유주의적 비판론으로 구분되었다. 이 사실은 품앗이의 목적 혹은 성격(이기적-공동체적), 국가지원에 대한 태도(수용적-배제적) 및 장기적 발전전망(낙관적-비관적) 등에 대해서 전연 상반된 답론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품앗이가 자율적 상호부조 활동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정책 및 전문성 지향적 관점이다. 이런 답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닌 사람은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부류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소극적 현실론으로서, 품앗이의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를 크게 수긍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로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발견되는 상이한 세계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품앗이 형태의 LETS가 대안적 보호체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다. 품앗이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임에 반해, 그것의 공동체적 성격과 공공부문에 대한 유용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성격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비교적 다수라는 점이 이러한 전망에 답을 제시한다고 본다. 특히 품앗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품앗이에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요컨대, 정책적 및 전문적 지원이 적절히 뒷받침된다면 이런 품앗이형 상호체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일정하게 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품앗이 활동을 오랫동안 행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이다. 특히, 이들의 판단은 선형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제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품앗이의 성격과 기능 및 장기적 전망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판단은 오히려 활동경험자들의 인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진술들에는 LETS가 갖는 또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과의 관계와 차이, 녹색 사회운동으로서의 생태학적 관심, 정치적 성격, 활동에 참여하는 중심세력에 대한 판단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연구를 통해서 추출한 답론이 포괄하는 이슈나 그것들을 논의하는 수준이 다소 제한적이란 것이다.

연구방법론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도 있다. Q-방법론은 제시되는 진술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여부를 짜여진 Q-정렬표에 배열하도록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

에서 리커트 척도등에 의한 의식조사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되는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연구결과의 해석에 일정한 오류가 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양적 분석과 질적 해석이 병행되는 방법인 관계로,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특정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상이한 세계관을 포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품앗이 형태의 호혜적 보호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 방법의 연구가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기, 2002, "호혜적 지역사회보호 네트워크 조성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아동 부모의 인식에 대한 Q-방법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경남지역연구 제7집.
-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미내사클럽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2000, "지역통화운동(LETS)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자료 .
- Barry, John & Proops, John, 2000, *Citizenship,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Research: Q Methodology and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Cheltenham, UK: Edward Elgar.
- Brown, Steven R., 1993,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Human Sciences: University of Georgia*, Vol. 16, pp. 91-138.
- Brown, Steven R., 1996, "Q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November, pp. 561-567.
- Cahn, Edgar S., 2001, "On LETS and Time Dolla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IJCCR)*, Vol. 5.
- Calwell, Caron, 2000, "Why Do People Join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JCCR* Vol. 4.
- Gran, Even, 1998, "Green Domination in Norwegian Letsystems: Catalyst for Growth or Constraint on Development?", *IJCCR*, Vol. 2.
- Ingleby, Julie, 1998, "Local Economic Trading Systems: Potentials for New Communities of Meaning: a brief exploration of eight LETSsystems, with focus on decision making", *IJCCR*, Vol. 2.
- Ithacahours Homepage, <http://www.ithacahours.org/allabouthours.html>
- LETSlink LONDON, <http://www.oneworld.org/letslinklondon/definition.htm>
- Liesch, Peter W. and Birch, Dawn, 2000, "Community-based LETSsystems in Australia:

Localised Barter in a Sophisticated Western Economy," *IJCCR*, Vol. 4.

Morris, Jenny, 1993, *Independent Lives: Community Care and Disabled Peopl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The QMethod Page, <http://www.rz.unibw-muenchen.de/~p41bsmk/qmethod/>

Seyfang, Gill, 1997, "Examining Local Currency Systems: A Social Audit Approach", *IJCCR*, Vol. 1.

Williams, Colin C., et al., 2001, "The Role of the Third Sector in Paving a 'Third Way': Some Lessons from Local Exchange and Trading Schemes in the United Kingdom", *IJCCR*, Vol. 5.

Womanshare Homepage, <http://www.angelfire.com/ar2/womanshare/>

<부 표> 품앗이에 대한 인식파악을 위한 진술

1. 품앗이에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야 하므로, 이것을 봉사활동 조직이라 볼 수는 없다.
2. 품앗이는 충분하지 못한 전문기관이나 복지정책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3. 품앗이는 참여자들에게 상부상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품앗이는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라 오래 원만하게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5. 품앗이가 자녀보호에 드는 각 가정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6. 품앗이는 회원의 개별적인 필요와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7. 품앗이는 순수한 상부상조 활동이므로, 정부는 간섭해서도 안 되고 지원할 필요도 없다.
8. 품앗이 운영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므로, 복지정책과 전문기관의 발전을 요구하는 편이 낫다.
9. 품앗이를 통한 보호활동이 정부나 전문기관의 서비스보다 아동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10. 품앗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임이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11. 전문기관의 수가 늘고 복지정책이 발달하더라도 품앗이 활동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12. 품앗이에 참여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낄만한 경험은 할 수 없을 것이다.
13. 품앗이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되살리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14. 품앗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도움을 받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다.
15. 품앗이는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이웃관계의 소중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16. 품앗이는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만들어지는 모임이다.
17. 품앗이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활동 중에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8. 정부의 정책이나 전문기관의 활동이 확대되면 품앗이 활동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19. 품앗이가 전문기관이나 복지정책이 할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20. 품앗이는 적은 비용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
21. 품앗이는 각자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22. 품앗이는 도움을 받은 대가를 돈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갚는다는 점에서 색다른 모임이다.
23.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므로 품앗이 활동은 자리잡기 힘들 것이다.
24. 사람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더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품앗이 활동은 발전될 가능성이 적다.
25. 품앗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달리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26. 품앗이는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27. 품앗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므로, 그 가치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